

잠녀 유네스코 등재 갈길 먼데 "손발 따로"

김치 등재권고 판정... 후속주자 선정 경쟁 치열 예고
구심점 도 조직 구성 지연 속 민간 단체 후원 움직임
목적·방향·전달내용 제각각... 사업 집중력 상실 우려

등록 : 2013년 10월 27일 (일) 13:51:46 | 승인 : 2013년 10월 27일 (일) 14:03:13
최종수정 : 2013년 10월 27일 (일) 14:02:19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3일 김치와 김장문화에 대해 '등재권고' 판정을 하면서 다음 주자 선정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구심점 역할을 할 잠녀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화북포구에서 물질하는 잠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잠녀·잠녀문화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6월 실무진을 주축으로 한 '세계화TF팀'을 구성하고 제주잠녀·잠녀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물과 등재 신청서 작업 외에 지난해 말까지 도 단위 잠녀 조직을 발족한다는 계획을 내놴었다.

도 단위 잠녀조직은 잠녀문화 체계화 등의 작업에 있어 정책과 현장 간 시간차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는 물론이고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공동체 내부 동의와 의지'를 반영하는 장치로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제주도잠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에서도 2015년 제주 잠녀 유네스코 단독 등재 작업을 위해 올 하반기 중 도 단위 잠녀 조직인 '(가칭)해녀문화보전연합회' 출범 계획이 공개됐지만 다른 작업들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해녀'를 내세운 민간 조직들이 통일되지 않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소셜클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특정 민간단체를 후원하는 내용의 프로젝트까지 진행되는 등 자칫 도 단위 잠녀조직의 대표성은 물론이고 '잠녀·잠녀문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수년에 걸쳐 진행돼온 관련 작업 전반에 있어 주체를 잃는 상황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7대 경관 선정 때 보여줬던 도의 집중력이 제주잠녀에는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업 효과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 단위 잠녀 조직 구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미기자